



정부·생산자간 절편녹용 간담회 개최

- 한·뉴 정부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4자 회담으로 해결책 모색해야 -

을 1월21일~25일 4박5일간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예정된 절편녹용 관련 정부간 회담을 앞두고 본회는 구랍 27일 농림부 회의실에서 절편녹용 관련부처 담당자들과 뉴질랜드 절편녹용 수입 문제에 관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본회는 절편녹용 수입시 국내 경쟁여건이 취약, 양육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절편녹용 수입허용을 반대하는 양육생산자 기본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하고 국내 양육업 안정기반 구축시까지 수입보류를 요청했다. 또한 1월 예정된 정부간 회담의 연기를 주장하는 한편, 회담이 진행될 경우 논의될 검사관 파견, 품질기준안 마련, 관세 부과 여부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했다.

본회는 품질기준도 마련되기 전에 검사관을 파견, 절편녹용 조기 수입을 실시하려는 정부를 질타하고 품질기준 마련까지 최대한 시간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품질기준 마련시 생산자 단체와 협의할 것을 제

안하고 품질기준 마련 후에도 물량을 제한, 시범수입 시행을 촉구했다. 절편녹용 수입관세도 최소한 200% 이상을 적용, 국산 녹용과의 가격차이를 최대한 줄여줄 것을 요구했으며 절편녹용 수입시 국내양육산업 피해에 따른 분담금 징수를 주장했다.

이 외에도 수입생녹용의 용도의 불법 유통을 엄중 단속할 것과 그에 따른 처벌 강화, 국내 양육업 육성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관계자들은 검사관 파견의 경우 조기 수입이 아닌 현장확인 차



▲ 절편녹용 수입문제에 관해 실시된 제1차 정부·생산자간 간담회에서 절편녹용 수입문제를 둘러싸고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원이라고 설명하고 품질기준 마련시 회분을 강화문제는 식약청과 협의,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 200% 적용은 WTO가 무관세를 지향하고 있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했으나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내산업 피해에 따른 분담금 징수 문제는 뉴질랜드의 분명한 입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한편, 수입생낙용 불법유통은 철저히 색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는 금번 실시될 웰링턴 회의의 연기가 불가능할 경우 양국 정부대표 및 양국 생산자대표가 포함된 4자 회담을 하자고 제의했다.

본회 성 락 사무총장은 “지난해부터 본회와 뉴질랜드 양록위원회(GIB)간 서신 교환 및 대표자 회합 등 대화가 시작됐으며 이를 통해 어느 한쪽의 피해를 간과한 채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히고 “뉴질랜드 생산자단체와 국내 생산자단체가 포함된 4자 회담이 성사된다면 절편낙용 문제에 관해 원만한 해결책을 도출

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관계자는 “금번 웰링턴 회담에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뉴측은 곧바로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회담을 연기하라는 양록협회의 주장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힌 반면 “양국 생산자 단체가 포함된 4자 회담은 좋은 의견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가 기대된다”며 적극 수용할 뜻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본회는 GIB측에 공문을 발송, 4자 회담을 제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본회 김은성 회장을 비롯, 양록축협 전병설 조합장, 본회 배소식 부회장, 이성복 이사, 성 락 사무총장이 배석했으며 정부측 관계자로는 박상표 사무관(보건복지부 한의약담당관실), 홍기원 사무관(외교통상부 아태통상과), 최준열 사무관(농림부 축산경영과), 유동희 사무관(식품의약품안전청 통상정보담당관실), 설효찬 사무관(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 이종필 연구관(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평가부)이 배석했다. **민국양록**

<토막뉴스>

절편낙용 수입협상 어디까지 진행됐나?
뉴질랜드는 지난 97년 한·뉴 농림장관회담에서부터 절편낙용 수입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우리 정부가 품질기준 마련 등을 이유로 절편낙용 수입에 난색을 표하자 뉴측은 99년 순록낙용 구별을 위한 DNA검사 방법을 우리측에 제공하는 등 절편낙용 품질기준안을 제시했다. 2000년 3월 뉴측은 한국내에서 절편낙용이 유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입불허 조치는 기술적 무역장벽에 관한 협정(TBT)에 위

배되므로 WTO에 제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후 몇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및 관계부처 회의 결과 절편낙용 품질기준을 2002년 말까지 우리정부가 마련키로 하고 품질기준 전까지 현지에 낙용검사관을 파견키로 결정했다. 2002년 1월 실시될 제 3차 실무회의에서는 절편낙용 수입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본회에서는 3차 실무회의시 정부와 생산자가 포함된 4자 회의를 진행, 우리측 요구를 뉴정부와 생산자단체에 직접 전달할 방침이다.